

welcron⁺in

2016 신년호 Vol.08 웰크론그룹 사보 'welcron인'

세사리빙
sesa living

WELCRON

- (주)welcron
- (주)welcron강원
- (주)welcron한택
- (주)welcron헬스케어
- (주)welcron글로벌비나
- (주)엘림하이드로
- (주)제주그린파워

세사리빙 전속 모델 유아인

Healing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단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한 종이다.
변화는 즉 생존이다.
- 찰스 다윈 <종의 기원> 中

세상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로 인해 새롭게 변해가는 삶의 방식.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태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현재 즐기기 위해 이목을 집중시키는 '쿡방', '먹방'이 유행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복고 열풍이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누리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바로 변화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부터 시작해 외부로 향하는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달같이 밖에서 깨지면 생명이 끝나지만, 안에서부터 깨지면 생명이 시작된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생각한 대로 이루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2016년은 웰크론인 여러분이 변화에 앞장서는 도전의 첫해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welcron⁺in

2016 신년호 Vol.08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표지 이야기
알려지방지 기능성 침구브랜드
세사리빙(SES Living)의
전속 모델이 된 유아인

발행일 2016년 2월 1일(통권 제8호)
발행인 이영규
발행처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 홍보IR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tel. 02.2107.6742 / fax 02.539.8115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tel. 02.2285.0883
인쇄 솔텍
tel. 02.2269.5014

contents

Welcron Story

- 04 신년사
- 06 Special Theme
변화를 주도하라
- 08 Theme Talk
미래를 준비하는 웰크론
발 빠른 도약으로 엿보는 2016년
- 10 찰칵! 현장스케치 01
폐열회수보일러 이송 프로젝트
- 12 Zoom in Story
섬유 트렌드를 엿보다
기능성 섬유, 노화방지의 꿈을 실현하다
- 14 우리는 파트너
웰크론한텍과 포천 바이오 에너지

Welcron People

- 16 파워 인터뷰
그룹기획조정실 이윤무 상무
- 18 웰크론인 무한도전
웰크론그룹 2015 야간행군
- 22 아빠는 셰프
웰크론강원 영업본부 사업2팀 박주환 차장 가족
- 26 Cover Story
세사리빙의 새 광고모델 배우 유아인
- 28 행복을 파는 가게
세사 에디션 플래그십 스토어
- 32 다함께 예체능
웰크론 야구동호회
- 36 따뜻한 시선
세사리빙 고객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Welcron Life

- 38 Travel & View
청점 섬 제주와 제주그린파워의 따뜻한 동행
- 42 Health & Living
웰크론헬스케어 '그날엔 순면'
- 44 Wellbing & Life
전남 곡성군 봉조농촌체험마을
- 45 찰칵! 현장스케치 02
웰크론글로벌비나 창립 3주년 기념식 현장

46 News

50 빨간우체통



● Welcron그룹 회장 이영규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Welcron그룹의
변화와 도전
”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미래를 현실로’라는 슬로건 아래, Welcron그룹 전 임직원과 하나된 마음으로 달려왔던 을미년(乙未年)도 어느덧 마무리 되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Welcron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2011년 첫 호를 발간한 이래 Welcron인을 통해 저희 Welcron 그룹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Welcron그룹의 성장에 꾸준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은 Welcron그룹을 둘러싼 기업환경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급등락, 유가 급락으로 인한 중동경기 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자본 유출 등 불확실한 외부변수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lcron그룹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으로 2014년의 부진을 털어내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Welcron은 내수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침구 유통사업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입점 매장이 크게 증가했고, 단위 매장당 매출이 늘어나면서 Welcron의 견고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Welcron헬스케어 또한 주력상품인 한방생리대의 중국수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고, 순면제품과 텐셀제품 등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Welcron강원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PC사의 파트너로서 수주처 다각화에 성공했고,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주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제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진출을 통해 에너지플랜트 EPC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Welcron한텍 또한 중국 바이오디젤 플랜트 사업 진출, 동남아시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진출 등 종합 EPC 기업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 또한 2016년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경기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Welcron그룹은 이처럼 시시각각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저희 Welcron그룹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환경 규제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 한-베트남FTA, TPP 등 글로벌 국가들 간의 무역 장벽이 사라지면서 세계는 자유무역시장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Welcron그룹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22 222’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 건강, 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환경플랜트, 첨단소재,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성장 동력을 찾아 무리한 해외시장공략, 신사업 진출을 단행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기업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두렵다는 이유로 현재에 안주한다면 이 또한 실패한 기업의 전례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Welcron그룹 임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축’을 바짝 세우고, 시장상황에 귀 기울이며 도약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품종이 아닌 품질에 따라 선택된다고 합니다. 같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육조건이 좋은 곳에서 자란 것보다 풍파를 겪고 자란 것이 더욱 훌륭한 목재가 됩니다. 이런 좋은 나무는 나이가 들면 스스로 몸 속에서 송진을 만들어 단단한 심재로 거듭납니다. 제 살로 기름을 내어 만든 송진은 습기와 해충의 접근도 끄떡없이 막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Welcron그룹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파에 움츠리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접 뛰어들어 도전하며 스스로 체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슬기롭고 영민하며 재주가 뛰어나 타인의 시선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Welcron인 모두 원숭이와 같은 다재다능함을 마음껏 펼쳐 개인의 발전과 Welcron그룹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공을 개척해나가는 Welcron그룹의 활약에 주목해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께 우리기업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Welcron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Welcron그룹 회장 이영규 



변화를 주도하라

손자병법에 전승불복(戰勝不復)이란 말이 나온다.

“전쟁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똑같은 방법으로는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지켜주었던 마지노선이

2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독일에 침공을 허용한다.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지금도 통하리라고

생각했던 안일함이 부른 비극이다.

70년대 한국 최고의 서점이었던

종로서점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 좋은 위치에서 하루하루 편안한 날을 즐기다 보니

세상 변화를 읽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사물을 내 입장, 기술자의 입장, 회사 입장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은 드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사는 것이다.”란 말이 있다. 물건을 팔 때 실제 고객들이 무엇을 사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건설용 장비에 사용되는 윤활유를 파는 회사가 있었다. 고객은 건설업자들이었다. 과연 건설회사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가장 큰 니즈는 무엇일까? 건설업자들의 가장 큰 니즈는 장비가 고장 없이 잘 가동하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한 이 회사는 그들에게 '장비의 유지 및 보수의 필요성'을 분석해 주었다. 그런 다음 연간 기준으로 유지 및 보수프로그램을 계약하면서 대형 장비가 윤활유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멈추는 일이 없도록 보증해 주었다. 건설업자는 윤활유 대신 '중단 없는 공사'를 구입했다.

가구 회사 허먼 밀러의 슬로건은 '제품에서 시스템으로'이다. 이 회사는 가구나 비품을 파는 대신 회사 업무의 원활한 흐름과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배치 및 필요한 비품 구매에 대해 컨설팅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귀사는 가구를 구입하지만 사실 그것은 업무, 사기, 생산성 향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근태 소장

혁신은 기술개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래전 미국의 농부들은 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보급화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모든 물건값은 일일부로 지불해야만 했다) 사이러스 맥코믹은 다른 지불 방식은 없을까 고민하다 할부판매 방식을 고안했다. 한꺼번에 지불하지 말고 추수를 한 후 그 소득을 나누어 지불하게끔 한 것이다. 이 지불 방식 하나로 세계적인 농기구 회사로 우뚝 서게 된다. 웅진코웨이도 외환위기 때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고가의 정수기를 렌탈 형태로 바꾸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컨테이너 선은 애당초 신기술이 아니었다. 기차에 달려있는 컨테이너를 그대로 화물선에 옮겨 싣는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이로 인해 생산성은 무려 4배나 올랐다. 이런 것이 혁신이다.



C h a n g e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개월마다 함께 모여 회사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새로이 이 분야에 진출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변화의 첫 단계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남는 여력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폐기(abandonment)는 쉽지 않지만 그것이 가져다줄 효과는 크다. 폐기는 구성원의 의식구조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발상의 전환과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혁신을 부르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힘은 실로 막대하다. 글로벌 기업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웰크론그룹이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본다.



2016년 웰크론그룹 산업 기상도

미래를 준비하는 웰크론, 발 빠른 도약으로 엿보는 2016년

여러 경제전문기관들에 따르면 2016년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 속에서도 한 층 성장해온 웰크론그룹은 2016년의 슬로건처럼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웰크론그룹의 핵심산업과 신사업의 경제전망을 알아보자.

미리보는 2016년 웰크론그룹의 사업전망, 쾌청

웰크론그룹이 맞이할 올해의 우리나라 사업전망은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부진의 지속이 걱정되는 해이다. 최대 3.0%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의 완만한 성장, 국제유가 등 공급의 안정화로 인해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률이 1% 초·중반대에 머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웰크론그룹의 사업전망과 대처를 짚어보자.



* 기업 및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 물가에 대한 전망.



가능성 침구의
핵심
'섬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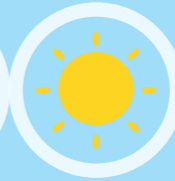


2016년 섬유산업은 선진국 수요의 개선과 개도국 섬유소재의 수출확대로 상승세를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해외생산과 수입비중이 커지면서 국내생산은 소폭 감소하고, 내수소비의 경우 수입확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웰크론은 나노소재를 이용한 신제품 출시, 세사 에디션 런칭을 통한 브랜드 확장, 배우 유아인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등 국내 가능성 침구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확대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침구 유통사업의 확대를 통해 2~3년 내 매출 2,000억 대의 침구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트렌드를 읽는
'환경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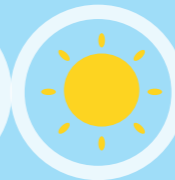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게 되면서 환경산업과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웰크론그룹은 고효율 필터, 폐기물 자원화설비, 친환경 보일러, 수처리 등의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웰크론강원이 제주도에 추진 중인 6MW급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웰크론한택이 중국 강소성에 건설 중인 연간 5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등 새로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물, 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미래를 읽고
앞서나가는
'중국사업'



중국은 심각한 환경오염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환경 규제수준을 대폭 강화한 新환경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환경관련 투자를 추진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에 공들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 산업과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막대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시장과 소비재 시장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 위생용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웰크론헬스케어는 1등급 위주의 유통망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유통망 다각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웰크론헬스케어는 중국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상해, RT마트, METRO, Tmall, SD.com, 아마존 차이나 등에 입점한 상태다. 또한 웰크론의 가능성 침구와 고효율 필터, 웰크론강원과 웰크론한택의 환경·에너지 설비 또한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어떤 해보다도 바쁜 해가 될 2016년, 사업의 다각화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웰크론그룹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웰크론강원, 국내 최대 규모 완성품

폐열회수보일러 이송 프로젝트 진행

지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웰크론강원의 3천 톤급 폐열회수보일러를 울산 SK어드밴스드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송,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육상과 해상을 통해 진행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송 프로젝트! 그 웅장한 모습을 현장스케치에 담아 보았다.



2015년 7월 16일 오후 평택항 파란 하늘과 평온한 바다. 그리고 평택항에 우뚝 서 위엄을 드러낸 거대한 구조물. 웰크론강원이 11개월에 걸쳐 제작한 폐열회수보일러이다. 총 중량 3,084톤, 가로 24m, 세로 45m, 높이 32m, 10층짜리 아파트 두 동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이 배에 실려 640km 떨어진 울산까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 7월 16일 오후 평택항

평택항에 우뚝 서 위엄을 드러낸 거대한 구조물. 웰크론강원이 11개월에 걸쳐 제작한 폐열회수보일러다. 총 중량 3,084톤, 가로 24m, 세로 45m, 높이 32m, 10층짜리 아파트 두 동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이 배에 실려 640km 떨어진 울산까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첨단 운송기술의 만남

산업용 보일러와 같은 대형 설비의 경우,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부분생산·현장조립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울산 프로젝트 현장에 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 단계부터 이송을 염두해 설계, 제작, 시공 등 전 단계에서 매우 정밀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했다.

이번 운송을 위해 첨단 운송 장비인 SPMT를 20대가 투입했다. 운송작업을 고려해 설계된 설비 하단으로 SPMT의 바퀴(axle) 120개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3천 톤의 거대한 설비는 서서히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칫 무게의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 하중이 치우치더라도 한다면 운송뿐만 아니라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도 장담할 수 없기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 속에서 운송작업을 진행했다.

3천 톤의 보일러는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바지선을 향해 나아갔고 성공적으로 선적 위치에 다다랐다. 다음날 새벽, 바다 위 바지선과 항만의 높이가 같아지는 만조 시간에 맞추어 설비가 다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고 1만 7천 톤급 바지선에 안착해 긴 항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3천 톤의 폐열회수보일러는 600km가 넘는 긴 항해 끝에 20일 울산 신항에 도착, 다시 육로를 이용해 SK어드밴스드 프로젝트 현장으로 이송되어 올 3월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다.

웰크론강원의 폐열회수보일러는 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을 재사용해 연간 630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운송현장을 찾은 뜨거운 취재열기
이번 프로젝트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KBS와 JTBC, YTN, 한국경제TV 등 주요 방송언론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운송 현장을 취재했다. JTBC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를 통해 평택항 현장뿐만 아니라 울산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사상 최대 보일러 이송작전

10층 아파트 크기 보일러 이송 대작전



SK어드밴스드 울산 PDH프로젝트는 SK가스와 사우디아라비아 APC사가 합작해 설립한 SK어드밴스가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전용 생산시설로 웰크론강원은 2014년 3월 메인 EPC를 담당하는 SK건설로부터 3,000톤급 폐열회수보일러를 수주 받아 2015년 6월 제작을 완료했다.



웰크론강원의 대형보일러 제작기술을 보여준 쇼케이스 이번 프로젝트처럼 완성품 형태의 대형 산업용 보일러를 납품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도이다. 웰크론강원의 엔지니어링 능력과 첨단 이송 기술력이 합작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섬유 트렌드를 엿보다

기능성 섬유, 노화방지의 꿈을 실현하다



가드닝
웰로쉬 메디

아르누보
나노숨

레니아
웰로쉬 알파

한때 '천 조각'으로
취급받았던 섬유가
첨단 기술을 만나면서
미래과학의 산물로
재탄생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기능성의
섬유제품이 출시되면서
최근 섬유시장은
다시 한 번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능성 섬유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다

섬유가 진화하고 있다. 위생복, 방진복 등에 사용되는 '특수섬유'부터 땀을 흡수해 발열효과를 내는 '흡습발열섬유', 인조혈관과 인공신장 투석망 등에 사용되는 '첨단의료섬유', 섬유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디지털섬유' 등 새로운 기능의 섬유 출시는 한때 사양산업이라 불렸던 섬유산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스포츠 아웃도어, 기능성 타월, 발열 내의 등의 기능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들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성 섬유의 시장은 변하고 있다. 면소재 위주의 침구시장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춰 '알러지방지'의 기능을 담은 침구 위주로 변화를 꾀했다. 소비자들은 침구를 단순히 덮고 자는 기능을 넘어 숙면을 유도하고 건강한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웰크론은 이러한 기능성 침구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기존의 알러지 방지, 먼지발생 최소화, 흡한 속건, 보온 기능 외에 '노화방지'의 새로운 기능을 더함으로써 한단계 더 진보한 침구원단을 출시했다.

Tip. 웰크론의 '안티-에이징(Anti-Aging) 기능성 원단이란?

사용자의 숙면을 유도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개선하도록 기능을 더한 원단으로 나노숨, 웰로쉬 메디, 웰로쉬 알파, 웰로쉬 제이드의 4가지로 개발됐다.

신소재 'Anti-Aging' 섬유로 엿보는 신제품

새롭게 준비한 '안티-에이징(Anti-Aging)' 기능성 원단은 침구시장의 변화와 섬유의 진화가 만나 탄생되었다. 건강한 수면이 주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숙면을 유도해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해 낸 웰크론.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은 나노숨, 웰로쉬 메디, 웰로쉬 알파, 웰로쉬 제이드 총 4종류로 이루어져 원단마다의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노숨(S 777)

'나노숨'은 머리카락보다 약 5천 배가 얇은 나노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미세한 섬유의 기공으로 공기를 조절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일반 원단의 침구를 덮고 잘 때 보다 1.5℃ 높은 보온성을 자랑한다.



웰로쉬 메디(S 731)

인체에 무해한 항균신소재가 함유된 섬유를 사용한 '웰로쉬 메디'는 원적외선을 방출해 삼림욕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폐렴구균과 포도상구균 등의 곰팡이를 99.9% 막아내고 유해가스를 제거해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웰로쉬 알파(S 707)

보습기능을 강화한 '웰로쉬 알파'는 수분조절을 통해 정전기를 예방하고 집먼지와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통기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세탁과 건조가 빨라 편리하며 부드러운 촉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웰로쉬 제이드(S 773)

'웰로쉬 제이드'는 이름처럼 춘천연옥을 사용해 옥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혈액순환과 세포활성화를 도와 노화방지 효과를 나타낸다. 더불어 혈류량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다양한 소재와 기능을 겸비한
침구를 만드는 '안티-에이징' 섬유.
그 안에 든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
웰크론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된다.

웰크론한텍 포천 바이오 에너지와 친환경, 고효율 폐수처리 공정 모델을 제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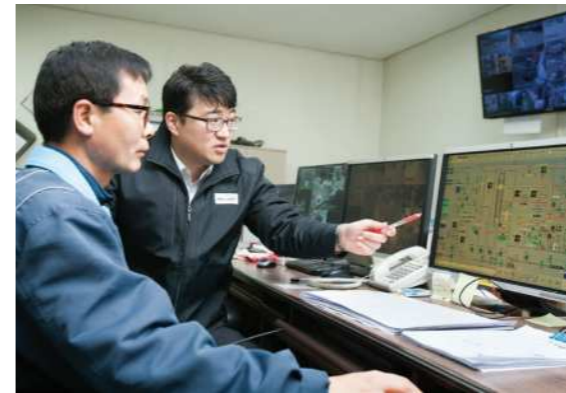
웰크론한텍과 포천 바이오 에너지는 지난해 2월부터 포천 바이오 에너지의 설비 공정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6개월 만에 폐수 처리능력 향상, 에너지 효율성 증대, 수익성 개선 등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며 고효율의 친환경 바이오플랜트 시설로 거듭났다. 웰크론한텍의 플랜트 기술과 포천 바이오 에너지의 협업이 돋보였던 공정 개선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경기도 포천의 친환경 바이오 플랜트 시설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포천 바이오 에너지는 포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친환경 폐수처리 시설로 2011년부터 상업 가동을 해왔다. 하지만 기존 폐수처리설비는 약품을 사용한 생물학적 처리 단계가 필요한 '스트리핑' 기술로 설계되어 처리 효율성이 낮고 일일 최대 200톤 정도의 폐수만 처리가 가능했다. 또한 가동시 에너지 사용량이 높고 약품 비용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해 운영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웰크론한텍과 포천 바이오 에너지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열원을 이용한 MVR농축방식으로 폐수처리 공정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웰크론한텍의 MVR 농축설비 도입을 통한 공정개선 작업



포천 바이오 에너지에서 도입한 웰크론한텍의 MVR 농축 설비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고온의 스팀을 이용한 열원을 사용하기에 친환경적이다. 기존 설비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적고 공정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가동률이 좋아 일일 최대 처리 용량도 기존 200톤에서 400톤까지 높일 수 있다. 포천 바이오 에너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인 것이다.

하지만 공정개선 작업 과정 중 직원들은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설비가 폐수를 이용하다 보니 시운전 내내 코를 찌르는 악취에 시달려야 했던 것. 또한 전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폐수가 장비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막힘 현상이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처리 설비의 개선과 설비운전 조건변경 등 양사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interview

웰크론한텍
플랜트사업부 열공정팀
송성재 과장



이번 프로젝트는 폐수처리 공정 개선에 좋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웰크론한텍은 포천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에 이어 MVR 농축설비를 이용한 또 다른 폐수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폐수처리 공정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천 바이오 에너지는 MVR 농축설비의 도입으로 설비가동률이 150%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유지 관리비의 감소로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웰크론한텍과 포천 바이오 에너지가 빚어낸 멋진 하모니는 기업과 기업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생하며 도약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그룹기획조정실 이윤무 상무
2016년,
웰크론의 미래를
다지는 시간



2012년, 웰크론그룹은 가족사 간의 비전 공유와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를 통합하고 '2022 222비전'을 선포했다. 2022년까지 매출 2조 원, 이익 2,000억 원, 시가총액 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웰크론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정표다. 모든 여행자들이 그렇듯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검토해야 하는 법.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위해 발표한 웰크론그룹의 3개년 사업계획을 그룹기획조정실장 이윤무 상무를 통해 알아봤다.

3년으로 만드는 미래의 이야기

그룹기획조정실은 전략기획 및 홍보IR과 인사, 총무,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각 가족사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웰크론그룹의 '컨트롤 타워'라 일컬어지는 만큼 웰크론그룹의 비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12년 '2022 222 비전' 선포 이래 목표달성을 위해 쉽지 않았던 이윤무 상무는 지난 2015년 12월, 웰크론그룹 임원 40여 명과 함께 임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웰크론그룹 3개년 사업계획'을 통해 지난 3년의 반성과 미래로 향할 3년의 그림을 그렸다.



도전하는 웰크론인을 위한 이윤무 상무의 3문 3답

01 웰크론 미래 계획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상의 시간을 목표로 잡으면 목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가족사와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2022년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02 미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룹과 가족사 간의 비전공유, 직원들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과정에서 회사는 물론 개인 또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 웰크론그룹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웰크론그룹의 성장과 미래가 현재에 달려있습니다. 몇 억이라는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이 고비가 값진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확고한
목표를
품어야 합니다



이윤무 상무에 따르면 성장을 위해 냉철한 시각으로 2012년에서 2015년을 돌아본 결과는 기대했던 수준에 한 발 못 미쳤다. 세계적인 경제둔화와 국내시장의 악화, 글로벌 유가하락과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난 3년간 웰크론그룹의 행보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꾸준히 성장해온 웰크론그룹은 이번의 씩씩한 성적표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위협요소로 다가온 기존시장의 불안정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에 따른 사업 아이템 개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환경·에너지 사업이 보여주는 가능성

이윤무 상무가 말하는 '웰크론그룹 3개년 계획'의 결과가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물, 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한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디젤 사업은 가장 주목 받는 차세대 사업으로 웰크론그룹의 첨단 기술력이 총망라된 사업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소규모 지역발전으로는 제주도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프로젝트가 아닌 실제 운영이 가능한 설비가 들어가는 최초의 발전사업으로 그 기대가 크다.

또한 중국에 건설 중인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은 그동안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이 어려웠던 폐식용유와 목화 산화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원료 수급문제 해결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중국의 환경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사업은 환경문제의 원인인 폐자원을 이용한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기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윤무 상무는 새로운 시장과 이에 걸맞은 사업아이템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줄 기술력의 삼위일체(三位一體)가 '웰크론그룹 3개년 사업계획'의 핵심과제로 이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 자부했다.

“2016년은 야구에 비유하자면 4회말입니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죠. 역전 당할 수도, 역전할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모든 일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능력을 과신한다면 9회말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 누구도 희망을 점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확고한 목표를 품어야 합니다.”

웰크론그룹 2015 야간행군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미래를 현실로!

작년에 이어 웰크론그룹은 8월 28일, 2015 야간행군을 실시했다. 임직원 391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총 15개의 조로 나눠 깃발을 펼쳐이며 걷는 무리는 결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영규 회장을 필두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야간행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go, go! welcron group

제11회 야간행군, 색다른 시작을 외치다

웰크론그룹 4개사와 함께 한 제11회 야간행군은 지난 행군들과 차별화되는 색다른 부분이 있었다. 매년 개최하는 중요행사인 만큼 임직원 모두를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흥미와 재미를 더한 이벤트 구간미션을 행군 중간에 녹여내 보다 나은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이런 미션들은 첫 행군을 나서는 신입사원의 긴장을 덜고 몇 번의 행군을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이영규 회장은 “자신감과 성취감, 사기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야간 행군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미래를 현실로!” 야간 행군의 취지를 밝히고 힘찬 구호로 시작을 알렸다. 준비체조로 몸을 풀 웰크론인들은 야간행군의 밤을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요모조모 미션! 하나가 된 웰크론인

웰크론 본사에서 시작된 야간행군은 각 구간마다 '핵심가치·바디레터 퍼즐 맞추기', '비전 날리기'의 미션이 준비되어 있었다. 첫 번째 미션은 '핵심가치·바디레터 퍼즐 맞추기'로 자음과 모음의 글자판으로 웰크론의 핵심가치 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핵심가치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팀원들과 뭉치고 흩어지는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미션의 주요 포인트였다. 글자판으로 단어를 조합하고 바디레터를 찍는 포즈를 세세히 궁리하는 동안 웰크론인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 미션에 이은 두 번째 미션인 '비전 날리기'는 중간 반환점에서 진행되었다. 각자의 소망을 풍선에 적어 하늘로 날리는 '비전 날리기'를 참여할 때는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환호성을 질렀다. 누가 더 큰 풍선을 불었고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를 엿보며 가족사의 임직원들과 한결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에 큼직하게 적은 소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야간행군의 고단함이 아닌 즐거운 표정이 가득했다.



첫 번째 미션은 '핵심가치·바디레터 퍼즐 맞추기'로 자음과 모음의 글자판으로 웰크론의 핵심가치 단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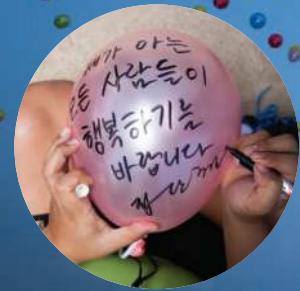


밤을 밝히며 탄탄대로를 달린다

구로동 본사에서 회사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출발한 임직원들은 철산교에서 양화대교까지의 여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왕복 30.4km의 거리, 걸을수록 무거워지는 발걸음과 구슬땀에 서서히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파이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친 동료와 맞춰 걷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동분서주했던 야간행군. 어두운 밤을 야광봉으로 밝히며 걸어 나가는 웰크론그룹의 행렬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 사기를 북돋는 외침, 지친 동료를 밀어주고, 선배는 후배에 맞춰 배려하는 웰크론인, 무한한 도전 정신으로 밤을 밝히는 그들의 성장을 기대한다.



각자의 소망을 풍선에 적어 하늘로 날리는 '비전 날리기'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환호성을 질렀다.



무한도전
새내기,
신입사원이
말한다!

“걱정과 설렘으로 가득한 첫 야간행군, 단단한 유대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이 세 미 사원

작년 12월 회사에 입사하고 그룹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일정 중 강도 높은 행사인 야간행군에 대해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일까 궁금증이 드는 반면 힘들다는 말들에 막연한 걱정과 설렘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행군 당일, 조원들과 준비 구호를 맞추고 회장님과 함께 그룹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완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날씨는 화창했고 각오 아닌 각오를 하고 와서인지 걱정만큼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지에서 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운동장에 모여 예정된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미션을 통해 너 나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 단합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미션 중 헬륨 풍선에 소망 문구를 적어 날려 보내는 미션이 행군을 하던 중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색색들이 풍선에 모든 웰크론 가족사 임직원들이 염원을 담아 동시에 날려 버리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은 품고 걱정거리는 날아갔습니다.**

반환점까지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다고 꼽히는 철산교 코스는 정말 진땀을 뺀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힘낼 수 있도록 북돋아가며 행군을 했기에 회사 정문을 밝은 순간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업무만 하느라 교류가 많이 없었던 직원들과 한층 더 가까워져 끈끈하고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연구소! 달성하는 웰크론 아자아자 파이팅!”



웰크론 음성공장 MB생산팀
유 한 철 사원

평소에 걷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야간행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야간행군을 시작하는 날, 서울 본사 옥상에서 직원들이 줄을 맞춰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야간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시원해서 깃발을 들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출발했지만 걷다 보니 땀이 나고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과 서로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냈습니다. 중간 이벤트에서는 구절 맞추기 게임을 하였는데 정답이 쉽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부장님 덕분에 쉽게 단어를 맞춰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반환점에 도착해 기다란 돛자리에서 커피면과 김밥을 먹으며 배를 채웠는데 행군을 하면서 먹는 밥은 꿀맛 같았습니다. 이후 직원 모두가 풍선에 소원을 적어 하늘에 날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웰크론의 밝은 미래를 느꼈고 이번 야간행군을 참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반환점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동안 날은 어두워지고 몸은 지쳐 피곤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도착하니 내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서로 박수를 쳐주며 다 함께 완주를 성공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웰크론에 입사한 지 아직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야간행군을 통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동료들과 위기를 기회로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MB 파이팅! 웰크론 파이팅!**

웰크론강원 영업본부 사업2팀 박주환 차장 가족 글램핑장에서 맛보는 아빠의 사랑 듬뿍 캠핑요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직접 요리한 근사한 식사를 선보이는 코너 '아빠는 셰프'.
그 첫 번째 포문은 웰크론강원 영업본부 사업2팀 박주환 차장이 열었다.
글램핑장에서 가족을 위해 준비한 맛있는 저녁식사 자리로 찾아가 보았다.

저마다 가진 개성으로 푹푹 뭉친 삼 남매



고요한 숲속에 찾아온 시끌벅적 다섯 가족

'하~'하고 소리내면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겨울의 문턱. 경기도 양주의 한 글램핑장에 박주환 차장 가족이 찾아왔다. 앞에는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뒤로는 숲이 우거진 이곳에 다섯 가족이 들어서니, 고요하던 글램핑장이 시끌벅적해졌다.

첫째 딸 선우와 둘째 서현이, 막내아들 해성이까지 세 남매를 자녀로 둔 박주환 차장. 맞벌이 부부라 가족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다는 그는 모처럼 다섯 가족을 데리고 글램핑에 나섰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가족들과 야외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온 짐이 박주환 차장의 설렘을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짐을 풀기가 무섭게 글램핑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두세 살 터울을 두고 있는 세 남매는 특히 동그랗고 큰 눈이 아빠를 닮았다. "첫째 선우는 동생들보다 얌전한 게 아내의 성격과 꼭 닮았어요. 서현이는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이고, 해성이는 막내답게 애교가 많고 붙임성이 좋아요." 저마다 가진 개성으로 푹푹 뭉친 삼 남매 덕분에 박주환 차장 가족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아이들이 커서도
스스럼없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놀아주기 달인, '친구' 같은 아빠

박주환 차장은 웰크론강원 영업본부에서 수주(계약)한 프로젝트의 원기관리부터, 자체·설비 조달관리, 위험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 사업 위주의 업무다 보니 다소 딱딱한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실제로 박주환 차장은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빠다. 평소에도 주말 내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고. "아내가 주말이면 직장에 나가요. 그래서 주말 이틀 동안은 제가 육아를 도맡아 하죠." 동네 놀이터 여섯 군데를 순회하며 놀아주는가 하면 계절별로 수영장,

눈썰매장 등 테마파크에서 온종일 지내다 오기도 한단다. 이제 세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전문가가 다 됐다는 박주환 차장이다. 글램핑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이 하루를 보내기에 더할 나위없었다. 세 남매도 이곳이 마음에 드는지 커다란 트램펄린과 미끄럼틀에서 뛰어노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빠, 우리 좀 봐요!” 선우와 서현이가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 트램펄린에서 높이 뛰었다. 그런 누나들이 재미있어 보였는지 트램펄린에 발을 들여놓는 해성이. 그런데 자꾸만 중심을 잃고 주저앉자 바라보던 가족들이 웃음이 터졌다. “아이들이 커서도 스스로 없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로 남고 싶다는 게 박주환 차장의 바람이다.

숯불 향을 머금은 아빠의 사랑

아이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노는 동안 텐트로 돌아온 박주환 차장은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여러 음식을 해주었지만 오늘은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캠핑요리를 해주려고요.” 가족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박주환 차장이 준비한 것은 숯불에 구운 닭 가슴살 샐러드. 먼저 닭 가슴살을 우유에 재워 비린내를 없애고 밑간을 해둔다. 숯에 불을 붙이고 그릴에 닭 가슴살을 올리니, ‘치이익’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퍼진다. “아빠, 배고파요~” 삼 남매가 아빠 주위로 웅기중기 모여들어 보채자 박주환 차장은 큰딸 선우의 도움을 받아 채소들을 다듬으며 요리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 접시에 다듬은 갖가지 채소를 깔고 그 위에 정갈하게 닭 가슴살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인애플 드레싱을 뿌려주니, 근사한 요리가 완성됐다.



“자, 애들아 오래 기다렸지?” 박주환 차장이 요리를 내오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젓가락을 집어 들었다. 서현이가 숯불 향이 그윽한 닭고기와 아삭한 채소를 입에 가득 물고는 아빠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척 세웠다. “아빠, 최고!” 아이들의 애교에 박주환 차장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린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네요. 우리 가족에게 오늘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요리와 함께여서 더욱 따뜻했던 다섯 가족의 겨울밤이었다.



Tip. 아빠의 간단 Recipe
닭 가슴살 샐러드(4인 기준)

★ 주재료 : 닭 가슴살 2쪽, 야채(양상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소금 약간, 드레싱 소스



01. 닭 가슴살은 저지방 손질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닭고기 밑간 한다.
02. 양상추와 파프리카 등 야채는 깨끗이 씻어 냉수에 30분 정도 담근다.
03. 1의 닭 가슴살을 노릇노릇하게 익힌다.
04. 2의 야채를 건져 먹기 좋게 뜯어놓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한다.
05. 채소와 닭 가슴살을 어울리게 담은 뒤 드레싱을 곁들인다.

세사리빙과 함께 여심저격!

세사리빙의 새 광고모델

유. 아. 인.



영화 '베테랑'과 '사도'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2015년을 빛낸 영화배우 1위에 선정된 유아인! '아인시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그가 세사리빙의 새로운 얼굴로 발탁됐다. 세사리빙의 대표 모델로서 그가 선택한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세사리빙 2016 S/S시즌 카탈로그 촬영과 TV CF 촬영이다. 한겨울 추위도 물러가게 만들었다는 그 뜨거운 현장을 웰크론인에서 살짝 공개한다.



몸으로 기억하는 세사리빙 with 배우 유아인

지난 12월 배우 유아인 씨가 카탈로그 촬영을 위해 용산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이번 카탈로그 콘셉트에 맞는 스타일링을 위해 분장실로 향했다. 그사이 세사리빙 디자이너들과 스태프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침구의 주름 하나, 주변 장식품 하나하나까지 다시 확인하며 제품과 모델이 모두 돋보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때로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때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미를 풍기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촬영 중간중간 스태프들이 침구를 정돈하고 조명 위치를 조절하는 동안 틈틈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니터링 하는 꼼꼼함도 돋보였다. 9시간여 동안 이뤄진 긴 촬영 시간 동안 유아인 씨는 침구의 테마와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했으며 최고의 컷이 나올 때마다 스태프들의 감탄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1월 16일 촬영이 진행된 세사리빙 TV CF는 '몸으로 기억해'를 콘셉트로, 세사리빙 침구를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그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 유아인 씨는 오전부터 드라마, 인터뷰 등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한 뒤 CF 촬영에 임했지만 지친 기색 없이 콘타에 따라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촬영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향후 세사리빙은 유아인 씨의 모습이 담긴 2016 S/S 카탈로그와 실물 크기의 등신대를 제작해 전국 대리점에 배포하고 유아인 씨를 모델로 TV CF의 제작과 방영, 드라마 PPL협찬을 통해 세사리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2016년 새해,
세사리빙과 함께할
유아인 씨의
활약이 기대된다.
”



세사 에디션(SESA EDITION) 플래그십 스토어의 새로운 혁명을 이끌다

최근 의류부터 생활가구까지
분야를 막론한 유통 브랜드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잇달아 열고 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것. 웰크론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2016년 4월, 플래그십 스토어
'세사 에디션(SESA EDITION)'의
오픈을 앞두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세사 에디션 플래그십 스토어 외경

하나의 트렌드 '플래그십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란 브랜드의 표준모델을 제시,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해 보여주는 대형매장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밀라노 및 미국 뉴욕 등 패션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패션에서 뷰티, 리빙을 비롯해 서점, 갤러리,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그중에서도 웰크론이 속한 리빙 분야의 경우 홈 인테리어와 관련된 생활 소품 등을 모두 아우르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2014년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가구브랜드 한샘, 현대 리바트, 까사미아, 체리쉬 등이 플래그십 스토어 개념으로 대형매장을 선보이고 있으며 생활용품에 비중을 강화한 이랜드 '모던하우스', 아트박스의 '아트박스', 신세계인테리어 '자주', 롯데상사의 '무인양품' 등이 있다. 글로벌 SPA 패션브랜드인 'H&M홈'과 '자라홈'도 플래그십 스토어의 형태를 취해 국내에 속속들이 진출하고 있다. 웰크론의 프리미엄 침구브랜드 세사(SESA) 또한 플래그십 스토어 '세사 에디션(SESA EDITION)'의 오픈으로 국내 라이프스타일 플래그십 스토어의 트렌드를 주도할 예정이다.

고객과 소통하는 매장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의 트렌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플래그십 스토어다. 불과 3~4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런 형태의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소비자들과 기업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가능해졌다. 고객과 SNS로 소통하며 의견을 재빠르게 수용하는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전시하고 소개함으로써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시하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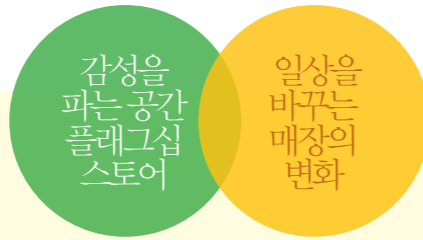
유통업계의 불황을 타파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2015년 가장 언급이 많이 된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연 '이케아'다. 가구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는 대표적인 플래그십 스토어의 형태로 가구와 침구를 비롯해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소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그들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콘셉트는 편안함과 일상 속에 필요한 실용적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것. 침대 옆에는 침구류와 전등을 함께 놓고 주방용품 옆에는 인테리어 소품을 같이 배치해 한 공간에서 방을 통째로 사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배치와 아이디어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모토인 '소비자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가구와 같이 여성들의 취향을 반영한 플래그십 스토어뿐 아니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도 증가하고 있다. '클럽모나코 맨즈샵'의 경우 패션 매장과 남성 헤어숍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감성적인 체험 마케팅으로 스타일 상담과 이발, 영국정통 습식면도를 제공해 점점 증가하는 맨즈 뷰티케어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한 번에 수용하기에 좋은 플래그십 스토어는 강남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백화점까지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트렌드에 반응하는 백화점에서 플래그십 스토어의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기업들이 변화해야 할 트렌드임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SESA EDITION



세사 에디션 플래그십 스토어(내부)



웰크론의 성장, 플래그십 스토어로 발맞추다

웰크론의 비전 '2022 222'의 목표에 맞춰 2022년까지 1,000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통사업본부는 신사업 진출을 통한 매출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출을 제품판매만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웰크론은 그에 따른 돌파구로 글로벌 진출을 꾀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통사업본부는 '세사 에디션(SESA EDITION)'의 론칭을 준비하게 됐다.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는 매년 변해요. 요즘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비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브랜드 고유의 감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웰크론의 유통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세사 에디션의 총괄 지휘를 맡고 있는 신정재 전무가 자신 있게 입을 열었다. 침구뿐 아니라 생활용품부터 가구까지 제품군을 넓히고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점포를 하나 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웰크론의 새로운 이미지와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기에 책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신정재 전무는 세사 에디션의 론칭에 열정을 쏟고 있다며 성공적인 오픈을 자부했다.

부드럽고 따스한 침구처럼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플래그십 스토어 론칭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정재 전무는 여성 리더로서의 '감성'이 고객들로 하여금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매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머지않아 백화점에서 침구 매장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단독 침구매장 대신, 복합적인 편집샵 형태로 변화한 지 오래죠. 세사는 현재 백화점에 45개의 점포가 있고 1, 2년 후에는 모든 백화점뿐만 아니라 아울렛 매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입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사 에디션은 그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해요. 또한 세사 에디션 매장 내에 '더 화이트 갤러리 뉴욕 (THE WHITE GALLERY NEW YORK)'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게 된 것도 이러한 침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 뉴욕에서 연상되는 모던하고 시크한 감성을 화이트와 모노톤의 무드로 풀어낸 더 화이트



세사 에디션 플래그십 스토어(내부)

“ 세사는 백화점에 45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사 에디션은 그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해요. ”



유통사업본부 신정재 전무

갤러리 뉴욕은 침구뿐 아니라 가구, 생활소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세사 에디션 본사 매장을 시작으로 주요 백화점에 곧 추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토탈 라이프샵이라고 할 수 있는, 세사 에디션에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감성의 고객층을 위한 부드럽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침구 구매의 주 고객층이 여성인 만큼, 여성 리더로서의 안목이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만큼 고충도 크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론칭 준비를 하다 보니 고민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죠. 15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투자하는 데다 접근성,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 등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정보가 많아서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크론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직원들과 더불어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신정재 전무의 웃는 얼굴에서 침구업계의 1위를 지키는 웰크론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4월에 오픈할 세사 에디션이 유통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구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에도 녹아있는 브랜드가 되는 것, 소비자들에게 상품만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주는 기업이 되는 것이 세사 에디션의 목표입니다.”

퍼펙트 게임을 꿈꾸며 저 멀리 힘차게 던지다

웰크론 야구동호회 '웰크론 위키스(WEKHIES)'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도 무색하게 오늘 치를 경기 위해 웰크론 야구동호회 '웰크론 위키스' 팀원들이 남양주에 위치한 화도 강변구장으로 모였다. 회사 내 구단을 창단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단합과 열정은 대단했다. 더 멋지고 강한 야구팀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웰크론 위키스'를 소개한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탄생시킨 '웰크론 위키스'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동호회예요." 웰크론 위키스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웰크론 로컬영업팀 권형준 계장이 웰크론 위키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면 야구가 취미인 사람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야구동호회를 만들자는 뜻이 모였고 지난해 9월 <웰크론 위키스>가 탄생했다. 점심시간마다 사내에 방송되는 <위키라디오>의 이름을 따서 동호회의 이름을 만들었다고. 웰크론 위키스는 감독인 권형준 계장 외에 소재개발팀 최인철 차장이 총무를, 대리점영업마케팅팀 박성현 과장이 코치를 맡고 있으며 총 16명의 웰크론 직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창단 후 짧은 시간이지만 팀원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격주 주말마다 3~4시간 정도 쉬지 않고 연습하는데도 연습시간이 다들 부족한 눈치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더 자주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권형준 계장은 팀원들의 단합과 친화력을 웰크론 위키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야구에 대한 관심만으로 시작한 동호회였지만 실전 감각을 익히며 '웰크론 위키스'는 벌써 두 번의 경기를 치렀다. 조금씩 선전하고 있는 경기 결과만큼 팀원들의 우승에 대한 의욕도 높아가고 있다.

동호회 팀원이 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웰크론 위키스'는 더더욱 강해지는 거죠.
더불어 스포츠를 통해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회사 생활까지 잘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두 번째 경기

이날 웰크론 위키스는 사회인 동호회 '어벤져스'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사회인 야구 3부 리그에 속한 실력이 뛰어난 팀이었지만, 웰크론 위키스 팀원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연습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팀원들이 둥글게 모여서 손을 한데 모았다. "웰크론 위키스, 파이팅!"

웰크론 위키스의 선 공격으로 시작한 경기는 3회까지 추축하며 상대편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듯 했다. 점수 차가 커져갔지만 팀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플레이에만 집중했다. "쓰리아웃" 3회말 플라이볼을 잡으며 또 다시 공격권을 잡은 웰크론 위키스가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4회초 포볼로 1루에 나갔던 박범진 사원이 홈을 밟으며 첫 1점을 획득했다. 팀원들의 안타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4점을 얻어 역전에 성공했다. 5회초에도 웰크론 위키스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홈런!" 박성현 과장의 야구배트에 맞은 공이 저 멀리 날아가면서 팀원들의 환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는 건강한 동호회 활동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과 업무가 아닌,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뜻깊게 느껴져요. 동호회 모임 시간만큼은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야구를 즐기고 있기에 동료애가 보다 끈끈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스포츠를 통해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자극을 부여한다고 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교훈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다.

웰크론 위키스는 2016년, 사회인 야구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어 동호회원 모두가 기대감에 가득 차있다. 이에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의 각오를 다졌다. 첫 번째는 부상 없이 무사히 리그를 마치는 것, 두 번째는 매 경기에 입할 때마다 팀원 모두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웰크론인이라는 하나의 자부심으로 경쟁력 있는 웰크론 위키스를 만드는 것이다. 팀원들 모두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날아가는 야구공처럼, 웰크론 위키스는 더 높은 비상을 위한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nterview

웰크론 로컬영업팀
권형준 계장

'웰크론 위키스가 사보 (다함께 예체능) 코너의 첫 주인공이 돼서 영광입니다. 동호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 에너지와 좋은 기운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열심히 활동해 웰크론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웰크론인이라면 언제든지 동호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앞으로도 '웰크론 위키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Tip. 웰크론 위키스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웰크론그룹 모든 가족사 직원이 가입 가능한 야구 동호회 월 2~3회 연습을 가지며 타 사회인 야구동호회와 경기를 갖기도 한다. 화제는 웰크론 직원일 경우 월 한월씩 급여에서 공제되며 그 외 기타 비용은 상황에 따라 팀원들과 나누어 부담한다.
가입문의 웰크론 로컬영업팀 권형준 계장 (kh9520@welkron.com)



2015년 제4회 고객체험수기 <최우수상> 수상작

“네가 잘 때 가렵지 않고, 따갑지 않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이불이 곧 도착할 거야.”

잠 못 드는 아토피의 시작, 그리고 끝없는 치료과정

우리 아이에게 아토피가 시작된 것은 아이가 세 살이 되던 2011년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했다고 하는 신도시의 유명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하고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의 피부는 심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오돌도돌 올라오고 간지러움을 참지 못해 긁으면서 아이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을 문질러 주지 않으면 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옆에 두고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밤새 긁던 아이의 배에는 모낭각화증이 남긴 커다란 흉이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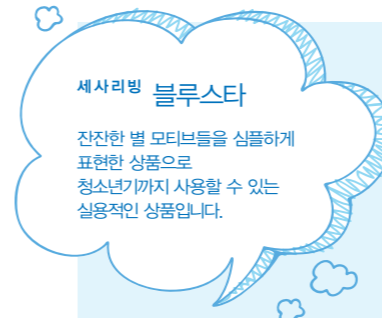
피부과에서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 집 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고, 늘 집안을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거실에는 그 흔한 러그 한 장 깔려 있지 않았지요.



'세사리빙'과의 만남

우연히 세사리빙 차량에 적힌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방지 이불이 있다고 하더니, 요즘 저 이불이 유행인가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왔고, 세사리빙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세사리빙 매장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분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저희는 아이가 사용할 '블루스타 이불, 패드, 베개 세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말했죠. "네가 잘 때 가렵지 않고, 따갑지 않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이불이 곧 도착할 거야."

세사리빙 침구를 사용한지 이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먼지와 집 먼지 진드기를 잡는 침구를 사용하면서 저는 아이를 목욕시키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토피 때문에 통 목욕도 길게 할 수 없는 아이지만, 샤워할 때마다 등을 닦으며 아이의 거친 피부가 잠잠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씩 집에 있는 모든 침구들을 세사리빙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피부와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건조한 겨울이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힘들어야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봄이 오면 조금 좋아지기는 하는 걸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잠자리만이라도 포근하고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사리빙 블루스타

잔잔한 별 모티프들을 심플하게 표현한 상품으로 청소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품입니다.

-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폭넓은 대중에게 어필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양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밀 지퍼 단으로 제작하였으며, 취향에 걸맞게 앞, 뒤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 실용적인 상품입니다.
- 극세사 고밀도 원단을 사용하여 집먼지 진드기가 침입하지 못하므로 위생적이며 알러지가 있는 아동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 웰로쉬 제품은 물세탁이 가능하고 세탁 후 건조가 빨라 자주 오염이 되는 아동용 침구로 사용하기에 실용적입니다.

쓰 면 서 느 끼 는
세 사 리 빙 침 구 의
우 수 성

01. 다양한 연령과 취향에 만족, 세사리빙!

매장과 카탈로그로 살펴본 세사리빙의 제품은 참 다양했습니다. 어른들께 선물해 드릴 예단이나 젊은 부부의 취향에 맞는 혼수이불도 있고, 키즈 라인과 베이비 라인으로 나뉘어 아이들의 필요에 잘 맞춘 세심한 구성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불, 패드, 베개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낮잠 이불과 롱 쿠션 같은 제품들도 알레르기 방지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과 취향, 필요를 만족시키는 침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2. 먼지가 나지 않는 침구, 세사리빙!

저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큰 아이의 이불을 덮고 아이와 함께 잠든 적이 있는데, 아이가 아무리 뛰고 장난을 쳐도 먼지가 별로 나지 않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코와 눈이 그렇게 말합니다.

03. 세탁이 쉽고 포근한 이불, 세사리빙!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불 빨래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세사리빙 이불은 쉽게 잘 마르는 편이라 빨래하고 다음 날 바로 보송보송하게 덮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세사리빙 침구는 두꺼운 재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을 때 몸과 이불 사이에 공기가 감돌아 온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04. 아토피 아이의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세사리빙!

세사리빙의 가장 좋은 점은 집 먼지 진드기를 케어한다는 것입니다. 침구를 바꾸고 한 달, 저희 아이는 정말 달게 잘 잡니다. 마법의 이불이라는 엄마의 주문이 통한 걸까요? 작지만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무리 살고 햇볕에 말린 이불을 주어도 덮은 지 이틀만 되면 오돌도돌 피부가 일어나고 이불이 닿는 곳마다 따끔따끔한 느낌이 든다는 아이가 지금은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주 해안동 제주그린파워 현장을 가다

청정 섬 제주와 제주그린파워의 또또한 동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감도

서울의 얼음장 같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도착한 제주의 아침은 계절이 무색할 만큼 따뜻했다. 삼다(三多: 예로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제주의 속성을 일컫는 말)의 고장답게 한시도 멈추지 않던 바람조차 훈풍이라, 두껍게 끼입은 외투가 다소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25분 남짓, 차창너머 잘 익은 감귤나무 군락과 지붕 낮은 집들, 푸른 잎으로 뒤덮인 무밭이 정감 어린 인사를 보내왔다. (주)제주그린파워 발전소 부지에는 이제야 가을이 온 것처럼 어른 키만큼 자란 갈대가 일제히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또또하다: '따뜻하다'의 제주방언

자연과 기술의 이중주

제주그린파워는 웰크론강원에서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제주그린파워는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SRF연료화 사업을 담당하게 되고 웰크론강원은 발전보일러를 비롯한 주요 설비를 제작해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SRF가스화 발전사업이란 플라스틱, 폐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품연료(SRF)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고품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폐열회수보일러로 보내 고압의 증기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주그린파워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시간당 최대 6MW의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하게 된다.



제주그린파워 발전사업본부 전인호 이사가 제주그린파워 발전소 부지를 안내하고 있다. 전 이사는 제주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제주의 청명한 기운을 답다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제주그린파워 사무실은 발전사업본부 전인호 이사가 지키고 있다. 그는 제주그린파워와 웰크론강원, 제주도청, 제주시청 사이의 소통 매개체로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주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전 이사가 안내하는 대로 제주그린파워의 SRF 생산시설 및 발전소 부지를 둘러봤다.

제주도의 염원을 담아

제주도는 2014년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 '탄소제로섬을 표방하며 풍력·태양광·신재생 등 100% 청정에너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제주그린파워 발전사업도 제주도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낱알이 더해가는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청정지역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의지도 강해 제주그린파워에 대한 도청, 시청 관계자들의 관심도 크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김구옥 주무관은 "제주그린파워가 제주도의 고민거리였던 매립지 확보문제와 환경파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제주시에서도 제주그린파워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그린파워는 올 3월 초 착공에 들어가 12월 완공예정이다. 현재 전 이사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주민협약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오수관로 매설 관련 제주시의 도로굴착심의도 통과된 상태다. 발전설비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제주그린파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벌써 지난해부터 조용하게 그러나 활기차게 첫 비상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

내일이 기대되는 그곳, 제주그린파워

"제주에도 눈이 내렸다"며 전 이사로부터 눈 덮인 제주그린파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도착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제주그린파워 현장은 여전히 사람보다는 바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몇 마리의 오리들과 건너편 목초지의 말들이 가끔 얼굴을 내미는 정겨운 곳이다. 그만큼 올 12월, 제주그린파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할지, 어떤 활약으로 청정지역 제주의 구원투수로 자리잡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제주에 가게 된다면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쓰레기 분리배출통만 봐도 '웰크론강원'과 '제주그린파워'를 먼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제주에 가면 제주그린파워가 있다.

이제부터는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분리배출시설만 봐도 '웰크론강원'과 '제주그린파워'를 먼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제주에 가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주그린파워가 있다.



제주시 SRF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제주시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김구옥 주무관과 제주그린파워 전인호 이사

interview



발전사업본부
전인호 이사

"제주그린파워에 발전소가 생긴다면 제주에서 가동되는 유일한 SRF 가스화 발전소가 될 겁니다. 제주도 안에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없어 제주그린파워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목마 등대가 있는 고요한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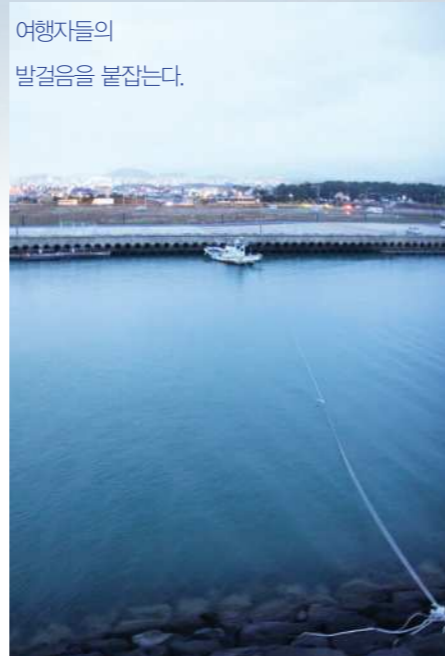
제주 이호테우 해변

제주 올레길 17코스에도 포함된 이호테우 해변은 제주 시내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교통편이 좋아 제주 바다를 보기 위해 멀리 나가기에 시간이 촉박한 여행객, 도보여행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꾸미지 않은 수수한 바닷가 마을의 풍경은 화려한 제주와 다른 소박함을 준다.

‘이호테우’ 해변의 이름의 ‘이호’는 이호테우 해변이 위치한 지역명을 따라 지어졌고, ‘테우’는 한자어로 ‘별선’이라 하여 떼로 만들어진 배를 의미한다. 이호지역은 예로부터 이호테우의 바다를 터전으로 어로 생활환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제주 고유의 어로 문화를 지키고자 매년 7~8월이면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멸치잡이 재현, 테우노젓기 체험, 테우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특이한 이름과 축제 외에도 이호테우 해변에는 볼거리가 하나 더 있다. 아름다운 낙조와 야경, 말형상의 등대로 유명한 이곳은 어슴푸레 해 질 무렵에 방문하면 그 진가를 발휘한다. 빨간색과 하얀색의 목마 등대 너머 오묘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과 바다 위로 뿌려지는 붉은 빛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혹여 일몰 시간을 놓쳤다가나 비가 내려 석양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는 말자. 방파제 옆 울리는 파도 소리와 야경, 등대 뒤편으로 반짝이는 비행기의 불빛은 여행객의 마음을 흠치기에 충분하다.

빨간색과 하얀색의
목마 등대 너머
오묘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과 바다 위로
뿌려지는 붉은 빛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대통령의 맛집 ‘유리네’

제주를 찾았다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향토음식 전문점인 ‘유리네’는 갈치와 고등어를 재료로 한 음식과 성게미역국, 자리돔물회 등의 음식을 선보인다. 동네 식당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고등어와 갈치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유리네의 담백하고 고소한 고등어와 갈치는 역대 대통령들은 물론이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도 즐지어 찾기로 유명하다.



주소 ● 제주시 연복로 146(연동 427-1)
전화번호 ● 062.748.0890
영업시간 ● 매일 09:00~20:30, 명절 휴무
가격 ● 갈치조림 32,000원, 갈치국 12,000원, 성게미역국 10,000원

돼지고기의 풍부한 맛이 가득 ‘올래국수’

제주도의 향토음식 고기국수는 돼지 뼈로 우린 육수에 삶은 밀가루 증면을 넣고 돼지고기 수육을 올려먹는 이색적인 맛의 국수다. 느끼할 것 같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 동네 식당처럼 작고 오래된 외관은 정겨움을 더하고 김치, 고추, 된장으로만 이루어진 반찬은 사골집의 소박함을 닮았다. 반면, 진한 육수의 풍미와 넉넉히 들어있는 돼지고기 수육의 부드러움, 면발의 묵직함은 어느 맛집에도 뒤지지 않는 풍족함이 가득하다.



주소 ● 제주시 제원길 17(연동 261-16)
전화번호 ● 064.742.7355
영업시간 ● 09:30~21:00, 공휴일 휴무
가격 ● 고기국수 7,000원

자연에서 찾은 순면으로 보호하는 피부

부드러움을 넣어 더욱 포근한 '순면'이 만드는 그날! 편안함을 즐겨보자

웰빙문화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건강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일수록 소비자들은 구매 시 더욱 간소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성의 경우, 일생의 8분의 1이라는 기간을 생리대와 함께 보내는 만큼 생리대를 고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 디자인 등을 살피게 되는데, 예지미인에서 이러한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건강하고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시했다.



자연 그대로, 순백이 아니어서 더 좋다

생리대는 가임기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이기에 업계에서는 '불황이 없는 제품'이라고 부른다. 더욱이 여성용품 시장의 특성상 선호도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생리대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는 기능성의 메쉬커버제품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편리함과 순면의 기능성, 친환경적인 성분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메쉬커버제품의 선호도는 4~5%씩 하락한 반면, 순면과 유기농 제품은 4~5%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리대 시장은 순면과 유기농 제품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라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위생용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편안함'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흡수기능이 중시됐다면 요즘에는 흡수력 뿐만 아니라 피부저자극 소재, 통풍과 같은 기능성, 자연친화적인 성분을 이용한 안전함으로 변화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환경이슈가 커지는 트렌드에 맞춰 자연친화적인 성분을 선호하고 있는 것. 웰크론헬스케어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 100% 순면 커버 생리대를 출시하고 한 발 더 앞서 나아가 국내 최초로 보관함 겸용 생리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생리대 패키지의 변신은 무죄

기존의 생리대 패키지는 비닐포장지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놓고 사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고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돈하여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스 모양의 종이를 패키지로 만들어 활용도 높은 보관겸용 패키지를 완성했다. 생리대 포장지의 색다른 모델을 제시한 웰크론헬스케어의 '그날엔 순면' 패키지를 살펴보자.



휴지걸이

사용하고 남은 패키지 박스 안에 두루마리 휴지를 넣어 생리대의 투입구로 휴지를 뽑으면 완성. 책상 위에 대충대충 굴러다니는 두루마리 휴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홀더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모품 포스트잇을 그날엔 순면 케이스에 넣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뽑아 쓰는 티백 보관함

좁은 통새로 숨어버리는 티백을 일품이 사용하게 만드는 티백 보관함. 뽑아 쓰는 재미를 그날엔 순면 패키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Tip. 01 천연 유래 100% 텐셀 소재로 여린 피부에도 안심! 텐셀물티슈

'예지미인'에서 화학성유가 아닌 천연 유래 100% 텐셀 소재 '텐셀 물티슈'를 출시했다. 나무에서 유래한 100% 텐셀 섬유로 만든 원단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청정지역 재주의 식물추출물이 피부에 보습과 생기를 부여해준다.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텐셀물티슈'는 여린 피부를 가진 아이부터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텐셀물티슈'는 이마트 전점에서 판매된다.
• 60매 캡형 3,500원



Tip. 02 NEW '예지미인 여성청결제'로 여성의 민감한 Y존을 관리하세요~

2016년 더욱 새롭고 다양한 '예지미인 여성청결제'가 출시된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품타입 '한방여성청결제'는 기존의 11가지 한방성분에 국내산 6년근 홍삼추출물이 추가되어 피부 보습 효과를 높였다. 여성청결제 사용증이 확대되면서 2030 소비자를 위한 '허브여성청결제'가 새롭게 출시된다. 청정 제주에서 자생하는 5가지 허브 성분과 8가지 향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주고 인체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 민감한 Y존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예지미인 여성청결제'는 이마트, 홈플러스, 올리브영, 왓슨스, 롬스에서 판매된다.
• 150ml 15,000원



‘봉조농촌체험마을’로 가족여행 어떠세요?

2015년 1월, 웰크론그룹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봉조농촌체험마을’. 이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전라도 곡성에 위치한 체험형 농촌 마을이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이곳은 잠시의 지루함을 참기 힘들어하는 어린 자녀도 즐거워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명소다. 시골마을 어르신들 특유의 넉넉한 인심은 덤인 ‘봉조농촌체험마을’을 알아보자.



농촌체험, 뻥하다는 편견은 버려주세요!

‘봉조농촌체험마을’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 장관 지정, 우수체험공간으로 선정된 전라도의 이름난 체험형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손수 가꾸어 탄생시킨 ‘봉조농촌체험학교’에서 방문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촌 체험 선생님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사골의 넉넉함과 생기를 나누어 주고 있다.

단순히 농촌의 풍경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체험이 아닌 실제 농가에서 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생태의 원리를 배우고 농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하루에 한 팀만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며 당일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계절별로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15-1
문의 www.bongjori.com

체험활동 밤 잼 만들기, 천연염색, 천연비누만들기, 옛생활 체험, 과일(매실, 포도, 자두) 및 농작물(감자, 옥수수) 수확, 다슬기 채집, 나무액자 만들기 등
단, 계절별 상이

Travel



베트남에서 화합과 도약의 희망을 엿보다



웰크론글로벌비나 창립 3주년 기념식이 지난 1월 15일 베트남 호치민 웰크론글로벌비나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현지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규 회장을 비롯해 웰크론강원 손기태 사장, CYC 찰스박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그룹기획조정실 이윤무 상무가 신임사장으로 취임해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성장의 사다리, 웰크론글로벌비나

웰크론글로벌비나는 창립 이후 3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창립 이후 베트남에 위치한 여러 해외기업 중 하나가 아닌 베트남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현지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연평균 1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웰크론그룹의 해외 생산 전초기지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웰크론글로벌비나는 올해를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창립 3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경비절감’ 등을 통해 매출확대는 물론 이익극대화를 통해 웰크론그룹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족사로 거듭날 것이다.

이날 3주년 기념식 후에는 배구, 축구,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명랑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장기자랑을 통해 임직원들이 숨겨두었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재단반의 트미 외 8명의 직원들이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하며 멋진 목소리로 베트남 가요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고, 해외영업팀 브이와이비 외 2명의 직원이 ‘아오자이’를 입고 전통 춤을 선보이는 등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영규 회장은 은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전 임직원에게 고급 침구를 선물했다.



웰크론그룹 세계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웰크론글로벌비나, 올 한 해 웰크론그룹 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할 웰크론글로벌비나의 도전을 응원한다.

웰크론한텍, 중국 강소성에 138억 원 규모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공급계약 체결
 - 중국 강소성에 연산 5만 톤 규모 바이오디젤 생산설비 공급



웰크론한텍이 지난해 8월 4일 중국의 수특산농원과기유한 공사와 138억 원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급계약은 중국 강소성 건호현 지역에 건설되는 연간 5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에 주요 설비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2016년 9월까지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웰크론한텍은 이미 2014년 9월, 중국 강소성 바이오디젤 사업단과 '중환합작 바이오디젤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미활용 원료에 최적화된 바이오디젤 생산공정 개발을 진행하며 중국 바이오디젤 시장진출을 준비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복합고체촉매를 이용한 미활용 유지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던 비식용 면화산화유 등의 미활용유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바이오디젤 생산공정을 처음 적용하게 된다.

웰크론그룹 한국 기계전 성료

- 국내 최대 핵심 자본재 종합전시회·웰크론·웰크론강원·웰크론한텍 참여



웰크론그룹이 지난 10월 28일부터 4일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진행된 '2015 한국기계전'에 참가했다. 제2전시장 '발전플랜트·원자력·전기설비'전에 출품한 이번 전시회에서 웰크론강원은 국내업체로는 최대·최다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산업용 보일러 및 황화수설비, 발전용 보일러를 소개했다. 웰크론한텍은 발전폐수설비, 해수담수플랜트 등 수처리설비와 최대 94%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MVR농축 시스템을 포함한 에너지절감 설비, 식음료 자동화설비, 플랜트 종합건설사업 등을 한국 기계전에서 선보였다.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과 달리 웰크론본사는 나노기술을 접목한 정수처리필터, 헤파필터, 공조기필터 등 고효율 필터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웰크론그룹의 엔지니어들이 상주하여 회사의 주요 설비를 비롯한 기술을 소개하고 고객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웰크론그룹이 참가한 2015 한국

기계전은 국내 최대 핵심 자본재 종합전시회로 25개국 550개사가 총 2,5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으며, 총 13만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웰크론강원 손기태 대표이사, 우수자본재 개발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웰크론강원 손기태 대표이사(사진 맨 왼쪽)가 대통령표창을 수여 받고 있다

웰크론강원의 손기태 대표이사가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5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손기태 대표이사는 산업용 수관식 보일러의 설계 및 제작을 총괄해 국내외 석유화학산업단체에 성공적으로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산업용 보일러의 주요기술을 국산화하여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대형 산업용 보일러는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독점적인 설계기술력을 보유한 분야로 손기태 대표이사와 웰크론강원 임직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해외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고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시간당 200톤 이상의 스팀을 공급할 수 있는 수관식 보일러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웰크론강원,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선정

- 환경설비사업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환경산업분야 성장가능성 인정



웰크론강원이 지난 12월, 경기도의 환경산업을 선도할 유망환경기업으로 선정됐다. 유망환경기업은 경기도가 도내 환경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 환경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제도로 2015년에는 제조 건설부문과 유통 서비스 기업부문에서 10개 기업이 지정됐다.

웰크론강원은 평가과정에서 환경에너지 사업분야의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업모델과 전략에서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제조·건설 부문에서 우수 환경기업으로 선정됐다.

웰크론강원이 최근 제주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그린파워는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갖춘 6MW급 SRF 가스화 발전 시설이다.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고품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며 제주시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유망환경기업 선정으로 경기도 및 관계기관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환경산업 포털을 통한 기업 홍보 등 17종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웰크론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 활동 진행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이 저소득층 이웃을 돕기 위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웰크론그룹이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웰크론,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등 그룹사 임직원 300여 명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힘든 겨울을 보낼 우리 이웃을 위해 인천 연탄은행과 협력해 연탄 3,000여 장을 직접 지고, 나르며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전달의 폭설과 갑자기 불어 닥친 매서운 추위로 지면이 얼어붙어 연탄을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모든 가구에 연탄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10년, 사내 봉사단의 연탄나눔 행사에서 시작된 웰크론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매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과 함께 웰크론의 극세사 침구도 함께 전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웰크론강원, 에너제닉과 226억 원 규모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



웰크론강원이 지난 12월 29일 ESCO사업자인 ㈜에너제닉과 226억 원 규모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급계약은 웰크론강원이 제주그린파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 해안동 SRF가스화발전소에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 4분기까지 발전보일러를 비롯한 주요 설비를 제작해 공급하게 된다.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육지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문제와 매립지 운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그린파워는 웰크론강원에서 지난 6월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득 후 8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해안동에 건설중인 6MW급 SRF가스화 발전소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고향연료(SRF)를 에너지원으로 시간당 최대 6MW의 전기를 생산해 제주시에 공급하게 된다.

웰크론, 보온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충진재 특허 획득



웰크론이 지난 1월, 보온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침장용 충진재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기존에 사용되던 침구용 충진재에 대비해 벌키성(부풀어 오르는 성질)과 보온성, 형태 안정성이 뛰어난 침장용 솜에 관한 것이다. 융점이 다른 두 종류의 섬유를 접착수지가 아닌 열처리를 통해 접착시킴으로써 접착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딱딱한 감촉을 제거해 초극세사 섬유의 부드러운 터치감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접착된 섬유를 3차원 형태로 적층해 입체감을 줌으로써 보온성이 뛰어나고 형태 안정성이 우수해 세탁 후 쉽게 뭉치던 기존 충진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안티-에이징(Anti-aging)을 컨셉으로 머리카락 5,000분의 1 굵기의 나노소재를 이용한 침구 원단을 개발해 수면시 보온과 보습기능을 강화해 숙면을 돕는 기능성 침구를 출시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특허기술을 세사와 세사리빙 침구 신제품에 적용할 계획으로 기능성 침구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웰크론은 수면연구소를 통해 매 시즌마다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출시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소재개발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기능성 침구시장 1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웰크론, 세사리빙 모델로 유아인 발탁



알려지지 않은 기능성 침구브랜드 '세사리빙(SESA Living)'이 1월, 배우 유아인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세사리빙은 '알리지 걱정 없는 건강한 이불, 먼지 없는 깨끗한 이불'을 모토로, 세련된 디자인에 알리지 방지 기능을 더한 감각적인 제품을 출시해온 침구브랜드로, '순수함'과 '카리스마'라는 상반된 매력을 가진 유아인의 이미지가 세사리빙과 잘 부합해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

세사리빙은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며 침구 구매고객의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30대로 낮춰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전속 모델 유아인을 앞세워 20대 이상 여성층을 아우르는 젊은 감성의 침구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세사리빙은 2011년 론칭해 국내 및 해외 210여 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판매액 500억 원을 달성, 기능성 침구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사리빙의 침구는 머리카락 굵기 1/100 이하의 고밀도 극세사 원단인 '웰로쉬'로 제작돼 각종 알레르기 및 피부염을 유발하는 집먼지알과 진드기의 서식 및 이동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면과 같은 단섬유에 비해 먼지 발생이 적어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면역력이 약한 자녀를 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2004년 청소년드라마 《반올림》을 통해 데뷔한 이래 드라마 《밀회》, 영화 《베테랑》, 《사도》 등 꾸준한 작품활동을 펼쳐왔으며 제36회 청룡영화상에서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해 연기력을 입증 받기도 했다.

현재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아인은 지난 12월에 세사리빙 2016년 S/S 시즌 카탈로그 화보촬영에 이어 1월 세사리빙 신규 CF를 촬영을 진행하는 등 세사리빙 전속모델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사리빙 사업본부장 김경민 전무는 "숙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웰-슬리핑(well-sleeping)'이 강조되면서 침구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세 배우로 떠오른 유아인의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기능성침구 대표 브랜드인 세사리빙과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Q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매년 경제위기 등 안 좋은 소식들로 삼라만상이 어둡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웰크론그룹은 웰크론인을 통해 회장님의 '초심불망'이라는 당부와 함께, 위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회로 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서울 동작구 이순욱 님

* 연이은 경제난으로 침체된 어려운 분위기에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 연탄 봉사활동을 하는 기사가 참 좋았습니다. 저 또한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 구로구 구로5동 손유리 님

Q 편집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 광명에 이케아 매장이 들어서면서 가구나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 매장에서는 침구와 다양한 제품을 함께 판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웰크론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뤄주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 서초구 반포동 김소연 님



Quiz 웰크론강원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해 를 설립하여, 제주 해안동 SRF 가스화 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웰크론그룹 사보 welcron+in 2016년 신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진 welcron+in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소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의 정답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8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과 소감을 담아 더욱 나은 사보를 제작해 나아가는 welcron+in이 되겠습니다.



편집 후기

어느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올 한 해 어떤 재미있는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웰크론인을 보다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 다소 무거운 사회적 경제 상황으로 인해 TV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좋은 소식을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웰크론인 8호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웰크론그룹의 즐겁고 희망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웰크론인과 함께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 홍보IR팀(pr@welcron.com)



Welcron Campaign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생의 무거운 가방을 받아주거나, 앞자리의 귀여운 아기에게 손을 흔들어주거나 길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무관한 타인이기에 서로에게 관심도, 어떠한 소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계단이나 복도에서도 바닥만 보고 있거나 고개만 '까딱'할 뿐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신규입사한 직원에 대한 호기심, 자주 마주치는 가족사 직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가십거리에 더욱 눈이 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마주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넥타이는 빼놓아지지 않았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멋진 미소를 보여주세요. 소리 내어 인사도 건네 보세요. 자녀의 안부도 묻고, 부모님의 건강도 물어보세요. 요즘 하는 일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고민을 들어주세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이
우리 회사와 당신의 내일을 변화시킵니다.



BRAND STORY

세사키즈 스토리

세사리빙이 만드는 키즈&베이비 전문브랜드 '세사키즈'는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수면환경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침구를 만들어 갑니다.

